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 재 진(통일연구원)

◆ 논문 요약 ◆

정부의 탈북자 보호 및 정착지원 정책은 상당히 완비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문제가 있는 정책들을 몇가지 제시하였다. 가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정착지원금제도, 보로금 제도 등은 탈북자들을 과보호하는 측면이 있으며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적응에 역기능을 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탈북자 적응장애의 실태 및 원인에 대한 네가지 측면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자들이 북한체제에서 형성되어 가지고 온 인성 및 가치관 중에서 남한체제에 적응하는 데 장애로 작용하는 요인 일곱가지를 논의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원 등의 적응교육기관에서 교재에 반영하여 교육해야 할 사안이다.

둘째, 사회문화적 이질성은 다른 체

제, 다른 사회에서 성장한 탈북자들에게는 불가피한 것으로서 시간이 지나면 다소 완화될 수 있는 문제들이며 탈북자 본인들도 이질성에 대하여 과민반응하기 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남한에서 직접적인 삶의 체험을 통하여 해소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셋째, 탈북자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직장에 잘 적응하는 문제라는 것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탈북자들이 남한사회에 가장 잘 적응하는 방법은 직장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넷째, 탈북자들은 많은 심리적 불안정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해소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정부 및 NGO 등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I. 문제 제기

2002년 들어서 '북한이탈주민' (이하 탈북자) 문제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금년 3월 중국 베이징 주재 스페인대사관에 진입하여 남

한행을 요구하던 탈북자 25명이 중국의 제3국 추방 형식으로 필리핀을 거쳐 남한에 입국하는 사건이 있는 뒤 유사한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다. 독일 대사관을 통하여 1명(4월 25일), 북경주재 미국대사관을 거쳐 2명(4월 26일), 선양주재 일본총영사관을 통하여 5명(5월 8일), 선양주재 미국 영사관을 통하여 6명(5월 9일, 5월 12일), 캐나다 대사관을 통하여 2명(5월 9일) 등 소수이나마 빈번하게 중국 주재 외국 공관으로 진입하여 한국이나 미국행을 요구하였으며 이들은 대부분이 중국의 처리과정을 거쳐서 한국으로 오는데 성공하였다. 급기야는 금년들어 한국 대사관에 진입하여 한국으로 오는데 성공한 탈북자수도 26명에 이른다. 이전까지는 주로 개인별로 제3국을 통하여 남한으로 오던 패턴에서 이제는 중국 주재 외국 공관으로 진입하여 한국으로 오는 방식이 추가된 것이다.

입국자의 수에 있어서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탈북자의 국내입국 규모는 1990년대 초반에는 연간 10명 내외의 비교적 적은 인원이었으나 북한의 식량난이 심화되는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50명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하다가 1998년의 72명에서 1999년에는 148명, 2000년에는 312명, 2001년에는 583명으로 증가하여 3년 연속 전년도에 2배로 증가하였으며, 금년 6월 말 현재 이미 514명이 입국하였는데 이런 추세라면 금년에도 작년의 2배인 1,200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남한에 거주하는 탈북자의 총 수도 1989년까지 607명에 불과했으나 90년대에 급증하여 현재 2,000명을 넘고 있다.

탈북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북한에서 밀어내는 요인으로서 북한의 식량난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식량을 구하기 위하여 탈북하기도 하고, 또 식량난 때문에 범죄에 연루되어 탈북하기도 한다. 둘째는 밖에서 끌어당기는 요인으로서 이미 탈북한 사람들이 중국이나 남한에서 북한에 남은 잔여 가족을 데리고 나오는 유형이다.

국내로 입국하는 탈북자의 수가 증가하는 이유도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탈북을 증가시키는 위의 두 가지 요인과 함께 탈북경로의 다양화가 원인의 하나이다. 과거에는 국내 입국경로가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있고 입국방법 등도 제한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입국경로가 여러 국가로 다변화되면서 입국이 용이해진 측면도 있다. 이 밖에도 국내외 연고가족 등의

도움을 받아 가족단위로 입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전체 입국자가 증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90년대 이후 남한에 온 탈북자들은 아직도 적응의 과정에 있다. 성공적으로 적응한 사람들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 남한생활에 적응을 못하게 되고 실패를 거듭하게 되면 그 원인을 대체로 정부의 잘못, 남한인의 부당한 대우, 편견 등의 탓으로 돌리게 되며 결국은 남한인에 대한 적대감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 탈북주민들은 남한주민들을 매우 이해타산적이며 순수하지 못한 계산꾼으로, 잘난체가 심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있다. 상당수가 남한주민에 대하여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 남한에서 적응해서 산다는 것에 더 이상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몇 번의 거듭되는 실패의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남한생활의 무의미감, 나아가 삶의 무의미감을 느끼게 되기도 한다.

국내 정착 탈북자 숫자가 많아짐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도 있지만 이미 귀순한 사람들의 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부터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탈북자들이 국내에 입국하여 남한사회에 적응 및 정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제를 몇 가지 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북한에서 가져온 개인의 인성 및 가치관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개인의 행위가 인성 및 가치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본다면 북한식의 인성과 가치관으로는 한국에서 적응하기가 어렵다.

둘째는 사회적 인간관계 및 문화적 이질성의 통합으로서 남한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새롭게 형성하여 상호작용을 하고, 남한사회의 제도와 관습, 문화에 익숙해져 남한사회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지는 단계이다.

셋째는 경제적 안정 또는 안정된 수입을 확보하는 것으로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직장생활에서 적응하여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생계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며, 생계문제가 해결되어야 다른 부문의 적응 및 정착이 가능해진다.

넷째는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얻는 과제로서 적응 및 정착의 최종 완성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정치적 통합이 필요한데 이는 북한사회를 이탈하여 남한에

은 사람으로서 북한체제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남한의 체제를 상대적으로 더 정당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과정이다. 기존연구에 의하면 탈북주민이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측면에서는 개인차가 크며, 심리적 적응에 있어서는 거의 모두가 큰 어려움을 느끼는 반면에, 정치사상적 측면에서는 비교적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¹⁾ 정치사상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덜하다고 인식하는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다. 이는 남북한 체제가 지난 50년 동안 대결하고 있었지만 남한으로 귀순해온 북한주민이 정치사상적으로 북한의 사상적 껍데기를 쉽게 벗어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북한의 지배이념이 북한주민들에게 피상적으로 밖에 기능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것은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자발적으로 북한을 떠난 사람들이며 평등과 공정한 사회적 부의 분배 등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가치관에는 나름대로 가치를 부여하지면 북한의 실제 현실이 그 가치와 괴리되었기 때문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경제적 적응은 정치적 통합, 사회문화적 통합, 사회심리적 적응에 기본 전제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한 면에서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적응과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안정된 직장과 적정수준의 소득이 보장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러나 경제적 적응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다른 부문의 적응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논문의 목적은 탈북자의 적응 및 정착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탈북자 적응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부적응의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나아가 개선방향을 제시해보는 것이다. 문제점의 분석 및 개선 방향 제시에서 사용될 개념의 틀은 위에서 제시한 적응 및 정착에 요구되는 네가지 차원의 개념들, 즉, 인성 및 가치관 재정립, 사회문화적 통합, 직장생활 적응, 심리적 정서적 통합이다.

1) 전우택, “탈북자들의 주요 사회배경에 따른 적응과 자아정체성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 제1권 2호 (1997), p. 121.

II. 정착지원 체계와 문제점

1. 탈북자 지원 정책의 변화

1962년까지는 남한의 어려운 경제사정과 한국 전쟁 중 대거 월남한 월남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잦은 무장공비의 출현으로 인한 대북적대감 등으로 탈북주민에 대한 정책은 매우 미약했으며, 단지 군사 보안적 차원에서 수용되어 활용되었을 뿐이었다.

이후 1962년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이 시행되면서 탈북주민을 부분적으로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기 시작했으며, 1974년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으로, 그리고, 1977년 12월 또다시 법이 개정되면서 탈북주민에 대한 지원의 폭은 더욱 증가되어 국가유공자와 거의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1978년 탈북 주민 지원 업무를 국가유공자와 함께 관리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고려에 따라 탈북주민을 동법에서 분리,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이 제정되었으며, 이로써 탈북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독립법이 처음 시행되었다. 이 시기에 탈북자들의 수혜의 폭은 이전에 비해 월등히 높아졌으며 국가유공자보다 오히려 풍족한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²⁾

1990년대 중반 이후 탈북자의 수가 급증하고 탈냉전의 시대적 흐름에 편승하여 탈북주민에 대한 특권적 지위에 반대하는 여론에 따라 탈북주민에 대한 정책도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난민구호 차원으로 인식을 전환하면서 소관부처도 보건복지부로 옮기고 1993년 12월 11일 ‘귀순 북한 동포보호법’이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을 대체하게 되었다. 탈북 주민도 우리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복지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물질적 지원 수준도 국내 영세민과의 형평성에 맞게 하향 조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정책으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탈북주민

2) 윤여상, 『국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p. 112.

들의 유입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비판에 따라 장기적 생활안정 대책의 수립을 전제로 한 법률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1997년 7월부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적응훈련 및 직업훈련 등을 강화하여 향후 남북한 사회통합의 구도하에서 접근하고자 한 점이다.³⁾

2. 현행의 지원체계⁴⁾

정부는 1998년 이 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초기정착금을 대폭 인상한 데 이어 1999년에는 법률을 개정하여 자립지원 방안을 대폭 강화하였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은 초기 자립지원, 사후관리 등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을 하게 되면, 보호결정을 한 후 사회적응교육, 취직, 정착지원금 지급, 주거알선 등의 자립·자활에 필요한 초기 자립지원을 하게 된다.

사후관리는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에 편입된 이후부터 시작되는데 이는 정착지원과 신변보호로 구분된다. 먼저 정착지원은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등 사회·종교단체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직업훈련, 취업알선, 학교편입·공납금 지원, 자매결연 등의 각종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다. 신변보호는 출신 신분별로 군인과 일반인으로 구분하여 관계부처에서 분리 담당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대처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이 협의회는 긴급현안 문제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업무성격별로 정책·운영·교육훈련·정착지원 소위원회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3) 독고순, 『비교문화적 관점에서의 탈북주민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1999), p. 71.

4) 자세한 내용은 통일부 홈페이지 /북한이탈주민지원; [www/unikorea.go.kr/kor/policy/citizen_view.../](http://www.unikorea.go.kr/kor/policy/citizen_view.../) 참조.

초기 자립지원

정부는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자립·자활능력을 갖추어 남한사회에 정착하여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표 1>에서 초기 자립지원의 내용을 요약하였다.

먼저 북한이탈주민이 초기 정착에 필요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착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초기 생계지원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 범위 내에서 기본금과 가산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다. 기본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160배 상당액의 범위 안에서 세대구성원의 수를 고려하여 1급에서 5급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다. 가산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40배 상당액의 범위 안에서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연령·건강상태·근로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이 국가이익을 위하여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의 종류에 따라 2억 5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지급지침에 의거하여 보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주거지원금은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1급에서 5급으로 구분하여 각 급수별 평형을 임대하는 데 필요한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연령·세대구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85㎡ 이하의 주택을 임대하는 데 필요한 주거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탈북자들이 사회에 편입됨과 동시에 대한주택공사 또는 각 자치단체에서 건립하는 영구·공공임대아파트를 알선해주고 있는데, 지방거주를 권장하기 위해서 희망하는 자에게는 일정액의 지방거주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초기 생계 지원금과 주거지원금을 합할 경우 성인 1인당 약 3,700만원이 지원되는 셈이다.

〈표 1〉 정착지원 내용

구 분		지 원 기 준	비 고
정 착 금	기본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급(5인 이상) : 월최저임금액의 160배 상당액 ○ 2급(4인) : 월최저임금액의 140배 상당액 ○ 3급(3인) : 월최저임금액의 120배 상당액 ○ 4급(2인) : 월최저임금액의 100배 상당액 ○ 5급(1인) : 월최저임금액의 80배 상당액 	○ 2002년도 월최저 임금액은 474,600원임
	가산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 구성원중 18세 이하 또는 55세 이상인 경우(2인까지) - 매 1인마다 월 최저 임금액의 10배 상당액 ○ 세대구성원중 장기치료를 요하는 자 또는 중증 신체장애자 - 3개월 이상 10배, 1년 이상 20배 상당액 ○ 자활능력 등을 감안하여 특별히 가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월 최저 임금액의 10배 상당액 	○ 동일인에게 지원항목이 2개 이상 중복되거나 세대 구성원과 중복될 경우에도 40배 이내에서 지급
주 거 증 금	임 대 증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급(6인 이상) : 21-25평 ○ 2급(5인) : 19평 ○ 3급(4인) : 17평 ○ 4급(3인) : 15평 ○ 5급(1-2인) : 13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 “다”지역은 급수별 “가”지역의 각각 40%, 70%를 가액 지급 (지방 거주 장려금) - 13평 경우 754만원
의 료 지 원	무 상	○ 세대주가 중병으로 상당기간 장기치료를 요하거나 중증 신체장애자인 경우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사안별로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지급
보 로 금	정 보	○ 2억 5천만원 이하	
	장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함, 전투복격기 : 1억 5천만원 이하 ○ 전차, 유도무기, 기타 비행기 : 5천만원 이하 ○ 포, 기관총, 소총류 등 무기류 : 1천만원 이하 	○ 보로금 지급지침에 의거 지급
	재 화	○ 시가 상당액	
학 비 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등학교 : 면제 ○ 사립대 : 정부보조 50%, 사립대 자체지원 50% ○ 국·공립대 : 면제 	○ 학비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학교교육지원비)

시설내 보호·지원

1994년 이후 국내로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남한사회의 일원으로서 조기에 안정적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적·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7년 7월 14일「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 관한법률」의 시행을 통해 정착지원시설의 건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1997년 12월 30일 부지 18,147평, 연건평 2,214평, 수용인원 100명 규모의 시설 건립에 착공하여 약 1년반의 공사기간을 거쳐 1999년 7월 8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나원에서는 2개월 동안의 교육과정을 통해 이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여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 수 있도록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 중점은 탈북 및 제3국에서의 은신·도피 생활 과정에서 겪은 심리적 불안과 자유민주주의 사회로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정서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심리안정·정서순화,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이해부족과 언어·사고·생활습관 등의 차이로 인한 문화적 이질감 해소에 교육중점을 두는 한편,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현장체험·교육과 진로지도, 운전·전산·요리·봉제 등 기초직업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가족단위 입국이 급증하는 추세에 따라 여성·아동 및 청소년 대상의 별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들이 사회 진출 후 학교 및 가정생활에 바로 적응하여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기간 중 하나원 인근 초등학교에 취학시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청소년은 민간단체 및 퇴직교사의 자원봉사 활동으로 별도의 학습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나원」 교육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정서·심리적 불안정 상태를 해소하는 프로그램으로서 탈북·제3국은신·도피생활 중 어려움 및 입국 후 환경변화로 인한 심리불안을 해소하며, 인성·적성검사를 통한 개별심리상태 파악 및 리순화를 위한 프로그램

이다.

둘째, 문화적 이질감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이해부족, 언어·사고·생활습관 등의 차이로 인한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며, 우리 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이론교육·현장학습 등 체계적인 사회적응 교육을 실시한다.

셋째, 진로지도 및 취업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직업훈련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으로서 향후 진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 전기간동안 진로지도도를 실시하며, 전산·운전·요리·봉제 등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기능훈련과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교육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점에서 하나원 운영에 민간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다. 특히 연령·학력·출신 등이 매우 다양하여 이들에게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은 민간의 참여 없이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실정이다. 현재 민간에서는 정규프로그램 이외의 주말·휴일프로그램은 물론 일반 국민들과의 다양한 접촉기회를 가질 수 있는 1일 현장체험, 지방 유적지 탐방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참여하고 있다.

사회진출 후 지원

하나원 적응 교육을 마치고 일반 사회에 진출한 후에도 정착과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들이 가동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겪는 어려움 중 가장 큰 문제는 취업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탈북자들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직업훈련과 함께 취업을 알선해 주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직업훈련을 받기 원하는 경우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는 동안 전문 진로상담요원의 지도로 개개인의 적성·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사회에 진출한 후에는 노동부의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담당자를 통해 공·사 직업훈련기관을 알선받아 원하는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직업훈련의 참여율을 높이고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훈

련기간 중 교통비·식비·가계보조수당 등의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취업 알선을 위하여 정부는 노동부 산하 각 지방노동청과 지방노동사무소의 고용안정센터 46개소에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창구를 개설하여 취업 보호담당자를 지정하고 전문적인 진로지도와 함께 직업훈련기관을 알선하고 취업 사업장을 연결시켜 주고 있다.

정부는 또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업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소관 공공시설안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 북한이탈주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였다.

탈북자들에 대한 고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고용자에게 임금을 보전하는 취업보호제도 늘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00년 부터는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2분의 1(70만원 이내)을 2년간 지원해주고 있는데 북한이탈주민의 안정된 직장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다.

교육에 있어서도 입학과 학비 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북한에서 이수하였던 학력을 인정하여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으며, 학교에 편·입학한 사람에게는 학비를 전액 면제해 주고 있다.

의료지원 및 생활보호지원도 시행하고 있다. 사회진출 후 희망자에 대해 의료보호 대상으로 지정하여 질병치료시 각종 의료비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으며,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특례를 인정하여 생활보호대상자로 편입될 수 있도록 주선하여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무직의 경우 기초생활비로 월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남한 사람의 경우 30만원에 비하여 2사람 몫으로 지원해주는 셈이다.

노령자에 대하여는 노령연금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의 국민연금법은 1999년 4월 1일 기준으로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에 한해서만 특례노령연금을 인정하고 있다. 1999년 4월 1일 이후에 국내 입국한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북한이탈주민도 특례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중앙·지방·민간간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사후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1999년 8월 1일부터 각 기초자치단체에 거주지보호담당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이들 거주지보호담당관은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순조롭게 편입할 수 있도록 각종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외에도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다. 탈북주민의 순조로운 적응, 정착을 위하여 정부 외에도 민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 하에 민간지원 활동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북한이탈주민후원회가 1997년 8월 18일 설립되었다. 후원회는 1997년의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거의 월남귀순자후원회(1962년), 월남귀순용사후원회(1978), 귀순북한동포후원회(1993)를 거쳐 재설립되었다.

이 후원회를 통해 생활이 아주 어려운 자에게 생활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종교단체 등을 통해 각종 생활상담·취업알선·결연 등 분야별로 특화된 지원을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안정된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민간차원에서 1999년 11월 3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협의회를 구성, 국내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민간단체별로 특화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가 이러한 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수준은 상당부분 제도적으로 완비된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체계는 지방·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 위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고, 정부주도에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Ⅲ. 탈북자 적응장애의 실태와 원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반세기 동안 이질화된 체제에서 살다가 탈북한 사람들이 남한에서 적응하여 정착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탈북자들이 남한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가치관, 사회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심리적 측면에서 적응되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각 측면의 적응이 별개로 따로 분리되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탈북주민의 적응과정이란 부분적인 영역으로 나누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삶의 과정이기 때문에 경제적 적응, 사회적 적응, 심리적 적응은 분리할 수 없는 문제이다. 특히 심리적 적응은 모든 부문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다. 탈북자 본인들이 의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북한체제에서 태어나서 살면서 체화된 사상과 인성이 남한에서 까지 그대로 잔존해 있으면서 직장생활이나 경제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들이 많다.

1. 인성 및 가치관의 차이

인성과 가치관은 개인적 특성이기는 하지만 사회화의 결과이기 때문에 사회구조적 체제적 영향을 받는다. 북한주민들은 북한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사회속에서 형성된 개인적 인성이나 가치관이 있다. 그 중에는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데 장애로 작용하는 요인들이 있다. 남한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그러한 인성이나 가치관이 재정립되지 않으면 안된다.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적응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들을 몇 가지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사회는 다양한 개성을 가진 인간을 집단주의적 획일적 권위주의적 통제 속에 묶어 놓았기 때문에 자신의 자존감(dignity)을 개성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강압적 표준화에 대응하여 개인이 표출할 수 있는 자존감 유지의 방식은 체면을 내세우는 방식이다. 특히 북한주민들은 평등화된 관계에서 자존감을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존심이나 체면을 중시한다고 한다. 이러한 인성은 합리적 행위를 하는데 장애가 된다. 실리보다는 명분을 중시하여 시장경제체제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한국에 오면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이해를 하지 않고 남한에서 새로 얻은 초보적인 정보에 더하여 북한에서 가지고 있던 지식과 선입견에 근거하여 나름대로 한국을 이해했다고 생각하고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북한에서 살아온 경험으로 결정을 내려버리는 셈이다. 특히 북한과 남한을 반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큰 시행착오를 경험하는 사례가 많다.⁵⁾

또한 엄격하게 통제되는 북한에 비하여 달리 남한은 매우 느슨하고 허술하다고 보는 경향이 많다. 책임과 의무가 매우 엄격하게 요구되며 최종적인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북한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무정부주의적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있다. 자본주의를 돈이 최고라는 식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향도 있다고 한다.

셋째, 북한에서 못살았던 보상을 남한에서 단기간 내에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탈북자들은 일확천금과 '대박'을 노리는 경향이 많다고 한다. 한국에 가면 돈을 왕창 벌 수 있다고 중국에서 듣고 왔으며 실제로 남한의 외형적인 발전상을 보고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 마치 신천지에 와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듯이 생각하고 있다. 나이가 젊을수록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으며 북한에서 못다 이룬 것을 남한에서 짧은 시간 내에 다 해보고자 한다. 희망사항만 가지고 현실의 구조와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무모한 시도를 한다고 한다. 그래서 탈북자들은 정부에서 알선해준 직장을 쉽게 그만두고 장사를 하겠다고 나서는 경우가 많다.

넷째, 북한의 총화 시간에 남을 비판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동료들을 비판하기를 잘하며 이러한 인성은 인간관계 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한 인성은 재정립하지 않으면 직장생활에서 순조롭게 적응하는데는 장애가 된다.⁶⁾

다섯째, 탈북자들은 정부의 배급체제하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정부의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남한에 와서는 남한이 다른 체제라고 생각하면서도 자신의 책임과 노력보다는 정부에 의존하고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여섯째, 탈북주민들은 육체노동을 혐오하고 정신노동을 선호하는 인성이 강하게 남아 있다.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것으로 주장되는 북한사회에서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에 대한 계층적 차별의식이 매우 강하다. 즉, 북한 사회의 육체노동자는 사회적 열등감 및 수치감을 느끼고 있으며 반면에 정

5) 김승철(탈북자, 1995년 입국)의 증언.

6) 김00, 하나원 교육담당관 증언 (2002년 6월 27일).

신노동자는 사회적 우월감 또는 선민의식을 느끼고 있다. 북한사회의 직업 위신 구조의 특징은 부, 권력, 명예 등 다원적 요인에 의하여 형성되는 자본주의 사회의 경우와는 구별된다는 점이다. 즉, 북한에는 사유재산이 없어 직업이라는 단일기준에 의한 계층질서가 형성되기 때문에 권력이라는 단일 가치만을 중심으로 경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이 정신훈동에 대해 높은 사회적 위신을 부여하는 동양의 유교적 전통 때문에 더 강화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북한에서 생필품을 비롯한 자원의 배분은 중앙집중적 관리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희소자원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직종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이러한 북한주민들의 직업선호 특성 때문에 탈북자들은 육체노동을 싫어하고 특히 3D업종에 종사하기를 꺼려하며 취업을 했다가도 쉽게 그만두고 나오는 경향이 있다. 탈북자들의 실업율이 40~50%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단순히 정책의 문제만은 아니고 탈북자 본인들의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다.

일곱째, 평등의 가치에 경직되게 집착하는 경향도 남한사회 적응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평등이라는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데 최고지도자와 간부계급을 제외하면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대체로 비슷한 형편에서 살고, 농민은 농민대로 비슷한 형편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일반서민들은 대체로 평등한 구조 속에서 살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나 아닌 남들이 더 잘사는 것을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 북한주민들이 남한에 살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사람들이 동료 탈북자들인데 북한에서 살던 지위나 북한에서 올 때 가져온 장비나 외화 등의 차이 때문에 남한에서도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불평을 하게 된다. 특히 이것을 정부 정책의 문제점으로 불평하면서 불만을 느끼는 경향이 많다. 보로금 제도가 바로 그 정책이다. 북한에서 가져온 정보나 장비에 대하여 차등적으로 보상금을 지불하는 제도이다. 보로금은 과거 체제경쟁기에 탈북을 유인하기 위한 제도로 만들어진 것인 만큼 현재는 탈북한 뒤 남한을 선택하여 입국한 사람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것이 주된 과제인 점을 고려한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하다.

이러한 사상인식 및 가치관 차이들이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적응

상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탈북자 본인들은 잘 의식하지 못하지만 남한 사람들이 이러한 차이를 발견하고는 남북간 주민간의 이질성을 알게 되고 탈북자들을 다르게 보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순조롭게 정착하기 위하여 개인의 인성과 가치관 정립을 바로 세워주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2. 사회문화적 이질성

탈북자들이 남한사회에 와서 느끼는 첫 인상은 완전히 다른 사회에 왔다는 이질감이라고 한다.⁷⁾ 이질감의 유형을 다음의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처음 1년~2년 동안은 같은 민족과 같이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남한사회의 모든 것이 낯설고 이질적인 느낌 속에서 산다고 한다. 거리의 어지러운 간판, 아침에 일어났을 때 행상인들의 물건파는 소리 등 모든 것이 낯설고 이상하다고 한다. 한 2년 정도가 지나면 이러한 일에 익숙해지고 낯설다는 느낌이 사라진다고 한다.

둘째, 북한의 유일적인 체제에서 살던 경험 때문에 남한의 다원적인 체제에 적응하는데서 스트레스가 많다고 한다. 여야의 싸움, 집단이기주의, 수없이 많은 사회단체와 그들의 상반된 목소리 등에 혼란을 겪는다고 한다. 특히 남한에서 정치인들이 항상 갈등하고 투쟁하는 것을 보고 불안감을 느낀다고 한다. 대북문제와 같이 중요한 문제도 여야가 합의하여 북한과 협상하거나 북한에 대응하지 않고 논란과 정치투쟁을 일삼는 것을 보고, 혹시 정권이 바뀌면 탈북자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다고 한다. 이 사회에 정착할 수 없겠다는 불안감을 느낀다고 한다.

셋째, 지나치게 외래어를 많이 쓰고 퇴폐적인 문화 등에서도 혼란과 충격을 받는다고 한다. TV 드라마에서 전통적인 남녀관계를 인위적으로 파괴하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한다.

넷째, 부익부 빈익빈의 차이가 큰 것에도 위화감을 느낀다고 한다. 일부 탈북자들은 북한에서처럼 오히려 김정일 혼자만 부자이고 대부분의 사람

7) 최00 (탈북자 동지회 전사무국장) 증언 (2002년 3월 20일).

들은 거지인 것이 더 나은 것 같다고까지 말한 사람도 있다.

다섯째, 2~3년 동안은 집을 벗어나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싫어한다고 한다. 모든 것이 익숙하지 않고 낯설고 이상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남한사람들의 책임도 크다. 남한사람들이 북한사람들에 대하여 무식하다거나 게으르다거나 하는 등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탈북자들이 많다. 그래서 남한사람과의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상호작용 함으로써 얻게 되는 사회적 위안이나 정서적 만족, 정보의 획득에 진전이 더디다. 4~5년이 지나서야 남한인과 대화를 하거나 같이 어울려서 술을 마시거나 노래방을 가거나 하는데 다소 익숙해지게 된다고 한다.⁸⁾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문화적으로 이질감을 느끼는 이러한 상황이 극복되지 않으면 직장에서 적응하는 데 장애로 작용할 수 있으며, 심리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3. 경제적 불안정 및 실업

남한사회 적응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는 경제적인 측면으로서 안정된 직장과 적정수준의 소득을 유지하는 것이다. 생계문제가 해결되어야 그 밖의 것도 생각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생계문제의 해결은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에서 가장 중요하며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다. 경제적 적응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북한의 정치적 유산을 청산하게 되고 문화적·심리적 적응도 이루어질 수 있다. 생계문제 해결의 열쇠는 직장생활에서 잘 적응하는 것이다.

전우택의 연구에 의하면 탈북자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심리적 안정과 정신건강상태가 그들이 벌고 있는 돈의 액수와 그에 대한 만족도에 직접 연관되고 있다고 한다. 월수입은 심리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인 것으로 밝혀졌다.⁹⁾ 경제적 적응은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에 그만큼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것이다.

8) 김00 (하나원 탈북자 교육담당관) 증언 (2002년 6월 27일).

9) 전우택, “탈북자들의 주요 사회배경에 따른 적응과 자아정체성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 제1권 2호 (1997), p. 125.

탈북자들의 절반 정도가 무직 또는 영세 자영업, 임시직 등의 불안정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실업상태는 남한사람도 마찬가지로 건디기 어려운 고통이지만 탈북자들에게는 더한 고통이다. 북한에서는 대체로 싫든 좋든 대부분이 어떤 형태로든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주부나 학생이라도 집단활동 또는 행사에 동원되고 있기 때문에 집안에 혼자서 고립되어 있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기존의 연구에서 탈북 초기 탈북주민은 인지적 및 정서적 측면에서 높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사회의 운영원리나 방식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매우 높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난민들의 경우 정신건강에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결과는 매우 다행스런 것이다. 이는 같은 민족이며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탈북주민이라는 동질적 집단이나 남한 사회내 친인척이 존재하고 있는 등의 구조적 여건이 기본적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매우 극심한 어려움을 딛고 남한 사회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성취감이 자신감을 북돋우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¹⁰⁾ 중국에서 들은 잘못 들은 정보에 의거하여 남한에 가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¹¹⁾

그러나 이러한 초기의 자신감은 실패의 경험을 통하여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탈북자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 경험하는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 그것은 적응에 실패하는 패턴이다. 북한주민들이 남한사회에 오면 당국의 조사와 적응교육 등의 일정한 과정을 거친 후 당국이 알선해준 직장생활을 하게 된다. 그런데 북한 및 통일관련 연구소 연구원이나 전문직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많은 수의 탈북자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첫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 흔하게 쓰는 영어 및 한자, 고도로 생활화된 컴퓨터 사용, 사회주의와는 다른 복잡한 경제적 현상 등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10) 독고순, 『비교문화적 관점에서의 탈북자의 적응연구』(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1999년), p. 144.

11) 김00 (하나원 교육담당관) 증언 (2002년 6월 27일).

직장생활의 일상업무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둘째는 직장의 조직생활 및 인간관계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한다. 일과시간 중의 동료 및 상사와의 상호작용에서 이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며 인간관계의 발전에 어려움을 경험한다. 특히 일과 후에 식사 및 술자리 등에서 대화와 여기놀이에 자연스럽게 어울리지 못하는데서 오는 소외감이 부적응의 큰 요인이 된다.

김영수·정영국의 연구에 의하면 24명의 직장인 중 직업에 만족해 하는 사람은 2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국가가 알선해 준 직업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없이 다니거나 적성에 맞지 않아 그만두고 싶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직장생활에 있어 애로 사항은 경험해 보지 않은 생소한 업무, 대인(동료·상사) 관계, 급여, 출퇴근 문제 등이었다고 한다. 특히 중소기업에 취직한 사람들의 이직율은 더 높다고 한다. 한국통신, 도로공사 등 국영기업에 취업한 사람들의 경우는 다소 적응하기가 낫다고 한다.¹²⁾

셋째는 이러한 적응장애뿐 아니라 일확천금의 꿈을 가지고 남한에 온 탈북자들의 경우 월급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거액을 벌 욕심으로 장사를 하기 위하여 직장을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적응장애를 경험하게 되면 탈북자들은 대체로 두가지 유형의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 첫째는, 나이가 젊은 사람의 경우로서 대학에 진학하여 영어, 자본주의, 남한사회를 더 배우고 나서 다시 취직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유형이다. 둘째는, 나이가 든 사람의 경우로서 다른 직장을 찾든지 아니면 조직생활을 도저히 하기 힘들고 장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

이 경우에 나이가 젊어서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는 성공하기가 쉽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대학을 다니면서 남한사회에 적응하는데 시간을 벌 뿐만 아니라, 영어, 전공, 일반상식 등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장차 남한사회 적응에 필요한 인간관계도 형성하게 된다.

그런데 장사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는 또 한번의 실패를 경험하기 위한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경제상황에 익숙하지 않은데다가 남한인들조차 이윤을 남기기 어려운 식당 등의 장사를 시작하지만 성공하는 경

12) 김영수·정영국, 『탈북귀순자 남한사회 적응실태조사』, (통일연수원, 1996).

우보다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다. 정부에서 받은 정착금 등 기본재산을 다 탕진하게 되는 것이다.

장사를 하다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장사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계약체결을 잘못하는 경우, 한국의 물정을 잘 모르는 약점을 이용하여 도와준다고 접근하는 사람에게 돈을 사기당하는 경우 등이 있다고 한다.

장사에서 마저 실패한 사람의 좌절감은 매우 심각한 정도가 된다. 매우 큰 심리적 상처까지 받게 된다. 한번 실패의 상처를 받게 되면 모든 것에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고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는 상황에까지 직면하게 된다.

실직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심리적인 상처가 된다. 안정된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 심리적 갈등에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탈북자 동지회의 경우, 회원 200여명 중에서 직업을 가진 사람은 70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¹³⁾ 물론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적응을 잘 하고 있는 사람은 탈북자 동지회에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전체의 비율로 볼 수는 없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동지회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북한에서 직장생활, 조직생활에 진절머리가 났는데, 실업상태로 있으니 오히려 그 때가 그립다는 것이다. 직업도 없이, 친구도 없이, 갈 곳도 없이 하루종일 집안에 박혀 있자니 온갖 생각이 다 나고 고통스럽고 견딜 수가 없다고 한다. 직장이 없다는 그 자체가 심리적 갈등의 근본 원인이 된다. 이러한 심리적 상태는 비단 탈북자만의 것은 아닐 것이다. 남한인의 경우도 실업상태가 되면 비슷한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탈북자의 경우에는 새로운 직장을 잡거나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구조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심리적 고통은 더 클 것이다.¹⁴⁾

4. 심리적/정서적 불안정

가치관 및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차원의 적응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때 최종적으로 심리적 정서적 차원의 적응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13) 안00 (탈북자동지회 사무국장) 증언 (2002년 3월 20일).

14) 최00 (탈북자 동지회 전사무국장) 증언.

한 영역에서라도 적응에 장애가 생기면 그것은 직접적으로 심리적인 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심리적 장애는 다른 부분의 적응에 영향을 미쳐 심리적 요인이 적응장애의 원인이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한다. 탈북주민들이 심리적 갈등을 느끼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 및 계기는 남한사회의 직장생활의 적응에 실패를 하게 되는 경험이다.

탈북자들은 초기에는 남북한간의 문화적 차이, 생활정보 획득의 어려움, 남한사람들과의 접촉기회 제한, 직장생활에서의 부적응, 열등의식 등으로 인해 폐쇄적인 생활을 하는 경향이 많으며 이로 인해 외로움을 많이 느끼기 쉽다. 이러한 경향은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생활에 점차 익숙해지면서 극복이 되는 문제들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으로 귀순한 사람들은 남한사회에 적응하기까지 상당기간동안 심리적 불안정을 겪는다. 이장호의 연구¹⁵⁾에 의하면 탈북자들은 대체로 5단계의 심리적 불안정을 거쳐서 정착하게 된다.

첫째, 이질문화 충격 단계로서 공포와 불안감이 심한 시기이다. 모든 것이 낯설기 때문에 불안하며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든 것이 불확실하여 남한에 온 것이 잘한 것인지 어떤지를 확신하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방황하기도 한다.

둘째, 기초취업준비 단계로서 남한사회의 여러측면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불만을 느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동조하기도 하는 등 복잡한 심리 상황에서 갈등을 하게 된다.

셋째, 생활정착 단계로서 어느 정도 적응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넷째, 재사회화 단계로서 남한사회에 순응하고 동화하는 시기이다. 다섯째, 문화사회적 통합단계로서 남한사람으로서의 소속감을 가지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게 되는 시기이다. 대체로 5년 내지 6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가능한 단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탈북자들 중에는 남한사회 적응에 현저하게 실패하는 사람도 있다. 구조적 장애들을 심리적으로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탈북자들이

15) 이장호, “남한이주자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체계적 접근,” 크리스찬아카데미 남북관계 대화모임, 『탈북자 지원을 위한 대책과 과제』 1996.

남한에 와서 적응에 실패하고 심리적 갈등을 경험하게 되면 심리적 병리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직장이나 결혼과 같은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경우에 만성적으로 느끼게 되는 문제이다. 탈북자들의 심리적 갈등은 대개 남한으로 귀순한지 4-5년 미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남한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느끼게 되는 심리가 또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다. 심지어는 직장에 새로 취직하는 것이 두렵고,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자본이 없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을 느끼게 한다.

대체로 이러한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한국으로 온지 2년 정도 지난 사람들의 경우에 많다고 볼 수 있다. 대개 첫 해는 보호기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해이다. 1년이 지나기 시작하면 취직과 퇴직을 반복하여 전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게 되는 심리적 문제가 무력감이다. 처음에는 기대감이나 환상을 가지고 한국에 왔다가 그러한 기대감이 무너지고 적응에 실패를 경험함에 따라서 정신력을 소진하게 된다.¹⁶⁾

이러한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는 대체로 남한의 여러 자선 단체의 지원을 받게 됨에 따라 다소 호전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무력감으로부터 다시 기운을 얻게 되는 것은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새로운 심리적 반전을 경험하는 경우이다. 상담소나 종교기관 등의 도움과 지원으로 이러한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한국에 온 것은 북한생활로 부터의 도약이 아니라 한국에서 새로 태어난다는 등 새로운 각오를 하는 등의 심리적 성숙의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은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경험한 사람들은 귀순자로서의 특권을 정부로부터 기대하거나 하는 등의 의존적인 심리에서 벗어나 스스로 삶을 개척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각오를 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정신적 성숙의 계기가 없는 경우는 심리적 무력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부적응의 기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더 악화되기도 한다.

탈북자들이 남한에 와서 심리적 정서적 불안정을 느끼는 까닭은 사회문

16) 독고순, 앞의 글, p. 146.

화적 이질성 때문만은 아니다. 다음과 같이 몇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북한가족에 대한 죄책감

북한에서 탈북하여 남한에 정착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심리적 갈등의 하나는 북한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죄책감이다. 가족을 두고 혼자 탈북함으로써 북한에 남은 가족이 정치적으로 큰 피해를 받게 된다는 자책감 때문이다. 실제로 부모형제를 두고 온 경우 부모와 형제들이 모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결혼하여 배우자를 두고 온 사람들의 경우 북한에 남은 배우자는 이혼을 함으로써 정치적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한다. 어떤 경우든 북한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죄책감은 탈북자들을 괴롭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래서 최근 남한거주 탈북자들의 소망의 하나는 연변을 통하여 접근하여 북한에 남은 가족들을 남한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다. 이에 성공하여 가족을 데리고 오는 사례가 다수 있다.

1995년 이전에 탈북한 사람들은 탈북 동기가 주로 정치적이며, 처음부터 남한을 목적지로 계획하고 탈북하여 남한으로 왔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을 쉽게 찾았다고 한다. 그러나 95년 이후 탈북자는 주로 경제적인 요인으로 탈북하여 중국 등지에서 전전하는 과정에서 남한인 및 조선족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남한으로 오게 된 사례가 많다고 한다. 남한에서 삶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좌절하게 되면 남한에 온 것 자체를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서 마음고생이 더욱 심하다고 한다. 잘못 왔다는 후회와 함께 북한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죄책감이 더욱 커진다고 한다.¹⁷⁾

자아상실감과 정체감의 혼란

탈북자들은 대체로 북한에서의 삶과 남한에서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특히 북한에서 사무직이나 관리직 전문직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남한에 와서는 하위직에 종사하기가 다반사인데 이들은 더 큰 자아상실감을 느끼게 된다. 북한에서의 자아와 남한에서의 자아가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가령, 북한에서는 당원, 대학졸업자, 엘리트로서 자

17) 김00 (전 중국 주재 북한외교관) 증언 (2002년 3월 31일).

아정체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남한에 오면 모두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북한주민들은 직장의 상급자, 당비서 등 체제가 규정해준 직위에 의하여 자아정체감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남한에 왔을 때는 이러한 구조적 준거틀들이 존재하지 않고 전혀 새로운 준거집단들이 자아를 규정하게 된다. 가령,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든지, 탈북한 사람이라든지, 뭔가 감추어진 사람이라든지 등 온통 부정적인 낙인이 많다.

전우택의 연구에 의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전체적으로 보아 학력이 높을수록 월수입액과 취업율이 더 높았으나 수입에 대한 만족도, 자신의 작업수행 능력에 대한 주관적인 자기평가 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¹⁸⁾

탈북자들은 남한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적응의 정도에 관하여 혼란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 탈북주민의 적응유형은 동화형과 통합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동화형이란 자신의 문화나 정체성을 유지하길 원치않고 그 나라의 문화만을 추구하는 경우이며, 통합형이란 자신의 문화를 유지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고 있는 경우로 어느 정도 문화적 순수성도 유지되고 있으면서 동시에 전체사회에 적응해 가는 것이다.¹⁹⁾

동화형의 특성을 보이는 사람들은 북한체제에 대한 반감이나 환멸, 부정적 인식이 큰 경우이다. 특히 북한사회의 심각한 경제난과 부패, 인권탄압 등의 직접적 희생양이 되었던 사람들은 북한 체제나 당국에 대한 엄청난 저항감이 있음은 물론이고 그 안의 일반주민에 대한 불신도 크다.

동화형은 이질적인 새로운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지금의 당면과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미쳐 신경 쓸 여유가 없거나, 보다 빨리 남한사회에 적응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동화형에 비해 통합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사회에 대한 전망이나 적응에 대한 기대에서 복잡한 심정을 드러낸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고민하는 이들에게 남한사회는 그다지 좋은 적응조건을 제공하고

18) 전우택, “탈북자들의 주요 사회배경에 따른 적응과 자아정체성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 제1권 2호 (1997), p. 136.

19) 독고순, 앞의 글, p. 149.

있는 것 같지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남한사회는 당연히 긍정적인 의미의 충격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것도 적지 않다. 남쪽 사람들 앞에서 내가 험뻏고 굶주린 모습으로 무식하고 실수를 연발하는 멍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충격이 심할 수밖에 없었다. 남북지식인 문화통합모임은 그런 면에서 나에게 또 다른 세계이다. 이 모임에서 나는 나일 수 있다. 나를 내가 원하는 식으로 만들어 갈 수 있고 나를 나로 드러낼 수 있다” 20)

최근에 온 탈북자일수록 북한체제는 머지않아서 붕괴한다고 생각하고 남한에 완전히 동화할 필요가 없으며 통일될 때까지 기다린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결혼 스트레스

탈북자들에게 결혼이 직장 문제와 더불어 가장 큰 문제의 하나라고 한다. 1995년 이후 탈북자 중에는 결혼하여 사는 사람이 1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남자든 여자든 남한인과 결혼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한다. 탈북자 동지회 남성회원 170명 중에서 독신으로 사는 사람이 70%라고 한다. 북한에서는 직업과 재산에 상관없이 결혼하는 것은 문제도 되지 않는데 비하여 남한에서는 결혼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선호하는 것이 탈북자끼리 결혼하는 것이라고 한다.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데는 남한인과 결혼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남한인과 결혼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남한인 여자는 결혼 상대자의 기본조건으로 안정된 직업을 꼽는데 탈북자 남자는 이점에서 가장 취약하며, 남한인 남자는 세련된 여자를 원하는데 북한인 여자는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 북한 여성이 남한 남성과 결혼한 경우가 하나도 없다고 한다.

한 여성 탈북자의 증언에 의하면 남한 남성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털끝 만큼도 없다고 한다. 그 까닭은 남한 남성들이 솔직해 보이지 않으며 부부생활에서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탈북남성들은 말과 행동은 거칠지만 그래도 믿음이 더 간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주로 남녀관계에 대한 가치관의 이질화된 차이점 때문이라고 한다.

20) 독고순, 앞의 글, P. 151에서 재인용

결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30대, 40대의 나이로 독신으로 5~6년 이상을 사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독신으로 있기 때문에 외로울 뿐만 아니라, 안정을 찾지 못하여 돈을 낭비하게 되고 그래서 정착하는데 더욱 어렵다고 한다.²¹⁾

남한인의 편견

남한사회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느끼는 심리적 장애요인의 하나는 남한인들이 탈북자들을 보는 편견에 있다. 첫째, 남한인들은 탈북자들이 북한을 탈북하여 남한으로 올 때 북한으로 돌아갈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거나 자기 체제와 자기 가족을 배반하고 왔을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탈북자 본인이 탈북의 동기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지만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의심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탈북자들을 범죄인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탈북자들이 남한사회에서 남한인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하는데 매우 큰 장애로 작용할 소지가 많다.

둘째, 탈북자들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살다가 왔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남한인과는 다른 점이 있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이다. 가령, 자기 일을 자기가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가졌을 것이라는 편견이다. 북한인들을 게으르고 나태한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탈북자들의 보호경찰관들이 이러한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가 있다.²²⁾ 탈북자 보호경찰관들은 탈북자들이 폐쇄되고 경직된 사고방식,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가치관의 혼돈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탈북자들은 자립의지가 부족하며 이기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인식들은 탈북자들이 남한으로 올 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남한에서의 삶이 생각보다 어렵다고 한다. 탈북자에 대한 편견의 한 사례로 탈북자 동지회가 사무실을 얻는데 어려움을 느꼈다고

21) 송00 (탈북자, 29세) 증언 (2000년 9월 20일).

22) 전우택, “탈북자 적응의 심리적 문제: 보호경찰관 설문결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학술발표회, 『북한사람 - 삶의 질, 굶주림, 남한사회 적응』, 1999.

한다.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데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것이다.²³⁾

IV. 개선 방향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문제의 실태와 그 원인을 살펴보았다. 부문별로 개선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1. 탈북자 지원 정책의 문제점 개선

앞에서 살펴본 대로 탈북자 보호 및 정착지원 정책은 상당히 완비되어 있는 편이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이 모두 완전한 것은 아니다. 어떤 정책들은 탈북자들을 과보호하는 측면이 있으며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적응에 역기능을 하는 부분도 있다. 가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탈북자가 취업하지 않을 경우에 50만원의 기초생활보장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지원하는 50만원과 그 밖의 지원단체에서 지원하는 수입을 합치면 취업하는 경우보다 훨씬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취업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서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적응에 장애로 작용하게 된다.

정책지원금제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 정착지원금은 혼자일 경우 월최저임금(474,600원)의 62배인 2,942만원이며 주거지원비는 13평형 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 754만원으로 모두 3,696만원을 받게 된다. 4인가족의 경우 모두 6,469만원 수준이다. 보로금을 받는 사람들의 지원금은 이 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일시불로 받게 되는 이 정착지원금은 크게 두 가지 용도로 오용되는 경향이 있다. 첫째는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을 데려오는 '공작금'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둘째는 직장을 그만두고 자영업을 시작하는 자본금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모두 지원목적에 어긋나게 사용되는 사례이다.

23) 최00 (탈북자동지회 전사무국장) 증언 (2002년 3월 20일).

일시불로 지급하는 정착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으나 고용을 보장하고 직업훈련 지원을 강화하여 자립능력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냉전시대의 산물인 포상적 차원으로 이해되는 정착금과 북에서 가지고 온 정보와 물자에 대한 보상형식으로 지급하는 보로금 제도는 체제경쟁이 끝나고 탈북자 처리문제가 사회문제로 된 현 시점에서는 재고되어야 할 사안이다.

특히 보로금 제도는 탈북자들간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서 개선을 요하는 사안이다. 북한에서 좋은 출신성분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고 온 사람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받는다라는 이유로 더 많은 정착금을 제공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이가 많고 학력수준이 낮은 계층이 적응하기가 어려운 계층이므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들 취약계층에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탈북자들이 정부의 탈북자 정책에 대해 가지는 보편적인 불만의 하나는 북한에서 직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정착금을 많이 주는 등 우대하는데 있다. 1994년에서 98년까지 입국한 사람들은 정착 지원금이 적어 적응에 애로를 겪고 있는 사람이 많으며 정착금제도에 대한 불만이 많다. 북한에서 좋은 출신성분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고 온 사람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받는다라는 이유로 더 많은 정착금을 제공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이는 그간 남한과 이런 저런 관련을 맺고 있어 피해를 보았던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탈북자들은 비판한다. 이들은 탈북과 통일이 북한에서의 계층구조가 뒤바뀌고 그간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북한에서 잘살던 사람들이 남한에서도 대우를 잘 받고 있어요. 귀순당시 외화를 가져온 사람도 있는데, 그 돈이 다 북한주민들의 것을 훔친 것이나 같습니다. 북한의 고위층은 다 북한주민들을 착취한 사람들인데 그들에 대한 남한 정부의 대우가 훨씬 좋습니다. 통일이 된다면 북한고위층 출신 귀순자들에게 복수를 하려는 북한주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²⁴⁾

24) 박종철·김영윤·이우영,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

북한에서의 경력, 자격, 노동연한 등을 인정해 주지 않는데서 오는 문제점도 많다고 한다. 탈북자들이 취직을 하여 열심히 일하지만 남한인에 대하여 턱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기관에서 직장을 알선하여 취직을 할 때는 회사에서 부여하는 급수가 높은지 낮은지도 모를 뿐 아니라 향후 진급 및 승진의 기회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일을 하다가 몇 년이 지난 후에 턱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연공서열의 성격이 잔존하고 있는데도 북한에서 온 사람은 이러한 점에서도 대접을 받지 못하고 하위직급으로 발령을 받는다고 한다. 이런 차별대우를 받게 되면 평등주의에 익숙한 북한인들로서는 견디기가 어렵다고 한다.²⁵⁾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적응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는 것임은 앞에서 지적되었다. 그런데 탈북자들이 남한사회에서 가지는 기회구조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의 하나이다. 그렇다면 탈북자들의 적응개선 방안으로서 가장 우선 되어야 할 것은 기회구조 확장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기존의 탈북자 취업정책에서 새로운 방향모색을 통하여 탈북자들에 대한 기회구조를 확대하는 것이다. 노동시장에서 가지는 불리함 때문에 남한의 자본주의 노동시장에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탈북자들은 남한인과의 경쟁에서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다.

가장 바람직하고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는 탈북자를 자본주의 노동시장에 맡겨놓기 보다는 도청, 군청 등의 국가기관에서 1명씩 학력과 자격, 적성을 고려하여 고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살았던 사람은 자본주의 시장 영역보다는 공공부문에 종사시키는 것이 적응하기에 보다 용이하기 때문이다.

2. 탈북자 교육에 대한 보완점

탈북자 문제의 특징의 하나는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 원을 졸업하고 남한사회에 배출되어 적응해 가는 같은 패턴을 반복한다는

선방안』(통일연구원, 1996), p. 92.

25) 최00 (전 탈북자 동지회 사무국장) 증언 (2000년 9월 20일).

것이다. 그래서 기존 탈북자들의 시행착오를 유형화하여 다음 기수의 탈북자들에게 선행사례를 소개해주는 방식의 교육이 유용할 것이다. 직접 실패를 경험하기 전에 간접적인 방식으로 실패에 대한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사전에 대비하게 하는 방식이다. 탈북자 개인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뿐 아니라 정책입안자에게도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이 논문은 탈북자들의 적응상의 실태와 그 원인을 부문별로 분류하여 시행착오의 패턴을 찾고자 하였다. 앞으로의 연구는 탈북자들 개인사례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성별, 연령별, 직업별, 학력별 집단에 따른 시행착오 및 성공사례들을 유형화하여 탈북자 적응교육의 교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가져온 가치관은 북한체제의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며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살아온 것이기 때문에 쉽게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체제와 남한체제의 차이점을 인식하게 되면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북한체제와 남한체제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가치관이 무엇인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가 사회주의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지, 우리 사회의 도덕과 규범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추진중인 사안이지만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시장경제교육 교재를 개발하여 하나원 교육생들에게 배포하여 읽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탈북자들의 적응에 가장 큰 장애로 작용하는 탈북자 개인의 가치의식 문제중의 하나는 탈북자들이 정신노동 위주의 직장을 선호한다는 점에 있다. 특히 3D업종에 종사하기를 기피하는 사례는 잘 알려져 있다. 제조업체에서는 외국노동자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데 이들 업체는 외국노동자보다는 언어소통이 잘 되는 탈북자들을 고용하기를 선호하지만 탈북자 본인들은 고려조차 하지 않는다고 한다. 탈북자들은 최소한 반사무직 정도의 직종이 되어야 관심을 갖고 취업을 한다고 한다. 탈북자들에 대한 교육시에 남한사회에서 가치의 다양성과 자아실현의 다양한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주는 과목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탈북자들의 대다수는 북한에서 장사를 해 본 경험이 있는데 이들은 남한에 와서는 자본주의를 장사와 동일시하면서 북한에서 해본 장사에 자

신감을 가지고 작은 자본으로 장사를 시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탈북자들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북한에서의 장사와 남한에서의 장사는 매우 다른 구조와 원리 속에서 작동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동시에 직장생활에서 꾸준히 적응노력을 하는 것이 남한사회 적응에서 가장 지름길이라는 점을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이전 탈북자들의 사례에서 볼 때 직장생활에서 꾸준히 노력하여 잘 적응한 사람이 남한사회에 가장 잘 적응한다는 사실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3. 적응장애를 보는 시각 조정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오면 문화적으로 이질성을 느끼고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남한과 북한은 다른 체제이며, 다른 사회이기 때문이다.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정책이 도움은 되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은 남한에서 직접 살면서 체험하는 것이다.

결국 탈북자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하는데는 하루아침에 완결될 수 없다. 시간이 지나면서 남한사람과 같은 성원으로서 같은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경험을 공유해야 같은 문화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탈북자들 자신이 남한사회에서 이질감을 느끼는 것에 대하여 조바심을 느껴서 소외당하기 보다는 이질감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 과정이라는 점을 사전에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해줄 필요가 있다.

남한과 북한사회는 단순히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로서 체제가 다르다는 것만 가르쳐서는 안된다.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남북한은 50년 이상을 다른 길을 걸어온 체제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나 마찬가지로 점을 부각해야 할 것이다.

탈북자들이 남한에 와서는 이질감을 느끼고 온갖 시행착오를 경험하지만 4-5년의 시간이 지나면 대체로 남한사회에 정착하게 된다. 그 동안에 정부의 지원이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남한에서 살아가면서 배우는 직접적인 삶의 체험이다.

4. 심리적/정서적 불안정 개선방안

결혼촉진을 위한 장치

탈북자들은 직장과 결혼문제만 해결되면 나머지 요인들은 피상적이라고 인식한다고 한다. 결혼은 탈북자들의 성공적인 남한사회 적응에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다. 탈북자들의 남한정착의 지름길은 결혼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할 때 정부 또는 탈북자 지원 민간단체에서 중매를 전담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설치하면 좋을 것이다.

탈북자들을 위한 전문 결혼상담소를 탈북자 후원회에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며, 일반 결혼상담기관에 탈북자들의 코너를 마련하여 운영한다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준거틀 조정 교육

탈북자들이 남한에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생활방식의 하나는 쉽게 북한에서의 삶을 망각하고 남한의 이웃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행위이다. 탈북자들이 남한에 생활하면서 이웃의 남한인과의 생활을 비교한다면 당연히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을 느끼기 쉽다. 탈북자들은 일단은 북한에서의 생활과 남한에서의 생활을 비교하는 준거틀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에 있을 때에 비하여 삶의 조건이 향상된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남한인과의 비교만을 만족의 척도로 사용한다면 불만족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탈북자들로 하여금 남한사회에서 생활한 시간대별로 비교의 척도를 변화시키는 지혜를 갖도록 교육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남한인과의 비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비교를 하는 삶의 지혜를 계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남한사회 적응에 너무 서둘러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완전한 적응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간접경험으로 제공받는 교육보다는 실제 체험이다. 대체로 4~5년의 시간이 지나면 남한사회에 적응하게 된다. 효과적인 정부정책과 더불어 탈북자 본인의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다.

종교 권유

전우택의 연구에 의하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좋은 정신건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탈북자들이 종교를 갖는 것은 남한사회 적응에 여러 가지 좋은 잇점이 있다. 첫째, 교회나 절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들과 지속적인 교제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북한의 가족을 떠나와서 홀로된 탈북자들이 새로운 인간관계와 지지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교회나 사찰은 자선사업을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탈북자들이 신도가 되면 그들 종교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직장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의 경우 종교계 등의 자선단체의 지원을 받으면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종교단체의 지원을 받을 경우 경제적 차원뿐 아니라 정신적 차원에서도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 고비를 넘긴다고 한다.

남한국민 교육

탈북자 개인의 적응노력과 정부차원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남한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적 지지망을 구성하여 탈북자들을 공동체적 구성원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노력도 중요하다.

탈북자들에 대한 따뜻한 정서적 포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내 정착중인 탈북자들이 호소하는 애로중의 하나는 남한인의 탈북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이다. 탈북자들은 지도자를 잘못 만난 죄 밖에 없으며 먹지 못하여 사선을 넘어 여기까지 온 난민들로서 인도주의적 지원의 대상이며 우리와의 통일의 대상이다.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것이 남한인들의 탈북자에 대한 시각의 조정인 것이다. 남한인에 대한 교육은 대체로 크게 두가지 차원의 내용을 부각해야 할 것이다. 첫째, 탈북의 배경에 대하여 개인적인 요인과 구조적인 요인을 구분하여 인식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 탈북의 계기로서 비행에 연루되어 당국에 쫓기다가 남한으로 오는 탈북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현상에 대하여 탈북자 개인의 비행으로 보는 시각을 바꾸도록 남한인을 교육

해야 한다. 북한과 같은 생존의 위기적 상황이 발생한 것은 북한의 체제적 요인 때문이며, 다수의 사람들이 비행에 가담하게 되는 것은 식량난과 같은 그 사회의 구조적 산물인 것이다. 식량난에 직면하여 아사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사회적 일탈을 하지 않기가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부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이 실패했을 경우 그 부작용에 대한 사전 교육을 남한인들에게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탈북자가 남한사회 적응에 실패하여 다시 북한으로 탈출하려다가 실패한 경우가 있었다. 이 하나의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북한에까지 알려져서 남한과의 통일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게 하는 악영향을 미친 바 있다. 한 사람의 실패 사례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적응문제는 단순히 탈북자 한 개인의 복지 문제가 아니라 남북한 통일을 위한 기반조성이라는 점을 남한인들이 새롭게 인식해야 할 주요 과제이다. 뿐만 아니라 수적으로 점증하는 탈북자들이 집단적으로 부적응자로 방치되고 사회적 불안요인이 된다면 그것은 심각한 국내적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5. 탈북자에 대한 새로운 호칭 제언

탈북자들의 발생 배경이 달라졌고 탈북의 양상도 달라졌기 때문에 탈북자들에 대한 호칭도 새로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과거에 월남귀순자(1962년), 월남귀순용사(1978), 귀순북한동포(1993), 북한이탈주민(1997) 또는 탈북자 등 다양한 말들이 사용되었다. 현재 공식용어로 쓰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는 변절자, 반동분자 등의 느낌이 들어 탈북자 전체가 매우 싫어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와 중국 등지에서 유랑하는 탈북자간에 구분이 안되어 개념에 혼란이 있는 문제도 있다. 현재는 탈북자 단체 내에서도 호칭변경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자유이주민'으로 하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것도 적합한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새로운 용어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필자는 남한에 귀순하여 정

착하고 있는 사람들을 ‘탈북정착민’(약어로 ‘탈북민’)이라고 부르며, 한국에 들어오지 않거나 못하고 중국 등지에서 유랑하는 사람들을 ‘탈북난민’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탈북정착민은 대량으로 탈북하였던 사람들이 남한을 최종 정착지로 선택하여 남한으로 귀순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과거에 소수의 사람들이 정치적 개인적 이유로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으로 와서 용사로서의 대우를 받는 시절과는 다른 양상으로 탈북 및 남한귀순 현상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용어가 적당하다고 본다. 난민이란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거처를 떠나 유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서 영어로는 displaced people이다. 중국에서 유랑하는 탈북자들은 분명히 경제적 정치적 난민인데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 탈북자 보호 및 정착을 지원하고 있는 법률의 이름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로서 그 취지가 ‘정착’을 지원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어 ‘탈북정착민’이라는 명칭은 법률명파도 일치하는 개념이다. 팔레스타인 등의 경우에도 정치적 이유 때문에 일정한 거처를 정하지 못하고 떠돌아 다니는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부르고, 법적으로 수용되어 한 곳에 거처를 정한 사람들을 정착민(resettlers)이라고 부르고 있어 국제법적 개념과도 일치한다.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고 주로 중국에 유랑하는 사람들을 ‘탈북난민’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그들에 대하여 난민 지위 부여를 거부하는 중국을 압박하는 언어적 수단이 될 수도 있다.

탈북정착민이라고 명명하게 되면 탈북자들이 스스로 남한땅에 정착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자성예언을 하게 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순조로운 정착에 도움이 되는 이미지를 가진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다.

V. 맺음말

지금까지 탈북자의 남한 정착 문제를 인성 및 가치관, 사회문화적 측면, 경제적 측면, 심리적 측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이 분석은 연간 수백 명 정도의 탈북자가 입국하는 기존의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런데 대량의 탈북자가 입국한 경우는 문제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무엇보다도 대량의 탈북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는 더 많은 국가 예산이 소요되며 이들에 대한 직업알선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어질 것이다. 국가의 예산이 뒤따르지 못할 경우 탈북자의 실업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앞의 논의에서 살펴본 대로 경제적 측면이 가장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탈북자의 수가 증가할수록 경제적 측면의 문제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금년도 입국 탈북자수가 1,0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이는 곧 하나원의 증축과 교육방식 변화의 불가피성을 의미한다.

탈북자의 숫자가 많아지면²⁶⁾ 하나원과 같은 수용시설이 정착 및 적응 훈련을 시키기 보다는 매뉴얼이나 시청각 교재 등을 통한 적응교육 방식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하나원과 같은 수용시설은 규모가 더 확대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 기관들의 기능은 임시보호를 하며 임시보호 기간동안 취직 등의 법적 처리와 주거지에 배출하기까지의 일시적 거처를 위한 기능으로 한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탈북자들의 숫자가 증가하면 이들의 가치관과 태도는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북한의 정치사상적 측면을 버리고 남한에 단순히 적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큰 영향을 안 받을 것이지만 심리적 측면에서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탈북자 수가 증가할수록 심리적 측면에서는 부의 영향과 정의 영향이 동시에 야기될 수 있다. 탈북자들의 수가 증가할수록 자신과 유사한 처지에 있는 동료의 수가 많다는 점에서 심리적 안정을 얻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취업 등의 측면에서 탈북자들의 취업난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종합컨대 탈북자의 수가 증가할수록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적응 및 정착 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26)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금순, 『대량탈북 사태시 구호체계 연구』 (통일연구원, 1999) 참조.